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한 나라의 멸망

(호세아 13:1 - 16)

원로목사 **이종윤**



"죄의 값은 사망"(롬6:23)입니다. 죄는 개인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를 소멸시키고 마침내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소멸해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1. 교만의 죄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1절).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므로 망했습니다. 개인은 물론 한 나라 역시 죄값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죄의 값으로 인하여 개인 뿐 아니라 한 국가도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원죄를 말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죽음을 자초하였습니다.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죽기전에 먼저 영혼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관계가 끊어진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핑계했습니다. 열매를 먹은 것은 시인했으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핑계를 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국가는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멸망은 저들의 영혼의 부패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형인 므낫세보다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손을 거꾸로 놓아 축복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왕성한 나라를 이루어 북이스라엘의 큰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알은 농업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업신인 바알을 섬기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열락의 우상, 이데올로기 우상,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기우상, 자식이라면 하나님도 버리는 자식우상, 그리고 진급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핑개쳐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멸망할 사람이나 국가는 영혼이 먼저 죽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습게 알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출발점은 여로보암이 벤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2.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아합 왕이 외국에서 바알 신상을 들여오고,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것이라하도다"(2절).

이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이스라엘은 사람도

아닌 스스로 만든 물질 앞에 절을 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으니라"(7절).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처벌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내가 분노하므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하므로 폐하였노라"(11절).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자녀 때문에 점을 보러 다닌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다"(15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먹여 준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6절).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모든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먹고 배부른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의 허리띠를 맬 수 있습니다.

3. 배은망덕의 죄

구원주를 대적하는 것은 구원자체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 안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없는 자식이라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임신을 했으면 해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이스라엘에는 모든 일이 순리가 아닌 역리로 작용합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다"(15절).

하나님을 떠난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이렇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민족 사회가 흔들리는 이 때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고난주간 새벽기도 - 인터넷 방송 4월 14일(금) 성금요일 기도회 - 웨스트민스터홀 4월 16일(주)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다. 4월 10일(월)~ 15일(토)까지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새벽기도회(인터넷 동영상) 설교는 이종운 원로목사가 담당한다. 4월 14일(금)은 성금요일로 해 있는 동안 금식하며 오후 8시부터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성금요일 기도회로 모인다. 부활절인 4월 16일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린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순결서약식이 있으며,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 오치열 장로, 지휘 : 백경화 권사)가 준비한 헌텔의 '메시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한 4월 23일부터 매주 찬양예배 설교를 이종운 원로목사가 담당하며 요한계시록을 강해한다.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재개

그동안 교회가 혼란하여 중단되었던 교육2국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가 2주전부터 다시 재개 되었다. 해당 학부모는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기 바란다.

- 팀장 : 박해정 집사 (010-8730-0452)
- 장소 : 서울교회 504호
- 시간 : 2부예배 후 12시40분~1시10분

다락방 리더 훈련

다락방 리더 훈련을 4월 19일(수) 수요일예배 후 8시에 101호에서 재개한다.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은 4월 14일(금) 오후 8시 성금요일 기도회에 연합으로 모인다.

각 다락방별로 모임은 4월 21일부터 시작 된다.

4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4월 5일 수요일 2부 예배 시 2017년 올해 첫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금번 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입교자 : 안성운 김요한 소준 계3명
- 유아세례자 : 김인성 계1명



2017년 1/4분기 추가 임명

* 예배위원회

1부 안내 : 정진영 신소정 김경자 2부 부장 : 예완식 / 안내 : 이병천 민의람 3부 부장 : 백승갑 / 안내 : 이선희 김희 선혜영 전미경 김영선 신이삭 유인재 나미경 권택숙 찬양 부장 : 양동덕 / 찬양부 : 최미경 김승록 이경순

1부 헌금 : 이상섭 이갑연 2부 헌금 : 심상필 최근자 유덕자 3부 헌금 : 박미애 곽태수

*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 부감 김애자

* 교육위원회

고등부 : 고형규 최복희 이명준

* 관리위원회

송인수(차량) 차영도(식당)

* 찬양위원회

2부 지휘자 : 류충기 3부 지휘자 : 임범창

할렐루야 찬양대

S:김유경 서희숙 / A:김경순 김정미 / 박분옥 이향수 최아영 / T:유형석 / B:김종철 임우택 임종태

은빛찬양대

<여자> 이순례 나옥녀 박영숙 박경희 유병옥 김수복 최봉애 양옥자 김숙자 우선자 박복순 황보추자 이경희 임분도 김길자 이원희 김종자 남태순 이화숙 정복순 최원자 한춘홍 황재연 전용순 유덕자 황선희 <남자> 최창화 이은상 임종태 정병무 황정욱 아멘관현악단 : 대장 김지수12

* 선교위원회

극동아시아 기도팀장 : 권소희 캄보디아 미안파 기도팀장 : 제오복 방글라데시 기도팀장 : 김정제 인도네시아 팔라우 기도팀장 : 정미연 중앙아시아 기도팀장 : 박길자 러시아 기도팀장 : 백영자 서남아시아 기도팀장 : 남태영 터키기도팀장 : 남태영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기도팀장 : 문분순 케냐 기도팀장 : 송민정

예비팀장 : 주경자 임미경 최세정

* 교구위원회

·1교구 : 지도 장석남 교구장 양춘경 부교구장 손용문 간사 최용준 임미경1

- 1 다락방장 정현구 / 부다락방장 : 최복희
- 2 다락방장 : 김연화1
- 3 다락방장 : 오선혜 / 부다락방장 : 이윤경2
- 4 다락방장 : 이인숙 / 부다락방장 : 김애리
- 5 다락방장 : 이옥수 / 부다락방장 : 임춘자
- 6 다락방장 : 신소영 / 부다락방장 : 이아미
- 7 다락방장 : 김일순 / 부다락방장 : 정승자
- 8 다락방장 : 황금선 / 부다락방장 : 이해경

·2교구 : 지도 서명철 교구장 최형열 부교구장 정치은 간사 김원중 선혜영

- 1 다락방장 : 신금진 / 부다락방장 : 이갑연
- 2 다락방장 : 이은희7 / 부다락방장 : 이귀숙
- 3 다락방장 : 김준호 / 부다락방장 : 송미정
- 4 다락방장 : 배은희 / 부다락방장 : 박인혜

·3교구 : 지도 조원영 교구장 송인권 부교구장 오승민 간사 김형상 김순영

- 1 다락방장 : 박정수1 / 부다락방장 : 김형상
- 2 다락방장 : 최금숙 / 부다락방장 : 김인아
- 3 다락방장 : 고정숙 / 부다락방장 : 송동선
- 4 다락방장 : 박영실 / 부다락방장 : 한명자
- 5 다락방장 : 한은미1 / 부다락방장 : 전광환
- 6 다락방장 : 박미숙1 / 부다락방장 : 이현경2
- 7 다락방장 : 양명희 / 부다락방장 : 권애란
- 8 다락방장 : 박정애 / 부다락방장 : 최경분
- 9 다락방장 : 최세정 / 부다락방장 : 주해민
- 10 다락방장 : 최정숙4 / 부다락방장 : 홍성미

4교구 : 지도 서준권 교구장 최광성 부교구장 윤성남 간사 한종표 박민숙

- 1 다락방장 : 윤복순 / 부다락방장 : 윤정희
- 2 다락방장 : 김유경 / 부다락방장 : 이현정1
- 3 다락방장 : 박명희 / 부다락방장 : 박민숙
- 4 다락방장 : 최종희 / 부다락방장 : 유수엽
- 5 다락방장 : 이영희1 / 부다락방장 : 고정숙
- 6 다락방장 : 김영희1 / 부다락방장 : 김광민

5교구 : 지도 서준권 교구장 하인선 부교구장 임선철 간사 김승록 문분순

- 1 다락방장 : 전미경 / 2 다락방장 : 이영희
- 5 / 3 다락방장 : 박은영 / 4 다락방장 : 이영주 / 5 : 다락방장 심하숙 / 6 다락방장 : 김복희2 부다락방장 : 문분순

6교구 : 지도 서준권 교구장 안인호 부교구장 박정인 간사 성수영

1 다락방장 : 김대웅 / 부다락방장 : 황병석 배기돈

2 다락방장 : 이영옥 / 부다락방장 : 서영세 3 다락방장 : 주경자 / 부다락방장 : 곽태수 박수옥

4 다락방장 : 김숙자 / 부다락방장 : 김영숙6

7교구 : 지도 서명철 교구장 차도훈 부교구장 백승갑 간사 장상국 제오복

- 1 다락방장 : 정인주
- 2 다락방장 : 김진달 / 부다락방장 : 이병천
- 3 다락방장 : 한혜경 / 부다락방장 : 김미성2
- 4 다락방장 : 이수정 / 부다락방장 : 조미영

8교구 : 지도 조원영 교구장 서문석 부교구장 김광철 간사 손태현 서영희

- 1 다락방장 : 이봉선 / 부다락방장 : 강애자
- 2 다락방장 : 강명진 / 부다락방장 : 이미숙
- 3 다락방장 : 한춘홍 / 부다락방장 : 주이현
- 4 다락방장 : 채덕희 / 부다락방장 : 임윤자

9교구 : 지도 서명철 교구장 이관규 부교구장 이남성 간사 김도연 유묘종

- 1 다락방장 : 이영희 / 부다락방장 : 문수자
- 2 다락방장 : 박희서
- 3 다락방장 : 김준목 / 부다락방장 : 김규원

4 다락방장 : 나현주1 / 부다락방장 : 김명화

5 다락방장 : 이선주 / 부다락방장 : 이지혜6

6 다락방장 : 박한옥 / 부다락방장 : 김미자

10교구 : 지도 서명철 교구장 이강진1 부교구장 예완식 간사 홍창훈 김은순

- 1 다락방장 : 김혜란 / 부다락방장 : 배효복
- 2 다락방장 : 김경희7 / 부다락방장 : 이미영2
- 3 다락방장 : 송금자 / 부다락방장 : 김경숙
- 4 다락방장 : 정진영2 / 부다락방장 : 조숙자
- 5 다락방장 : 정은순 / 부다락방장 : 이남용
- 6 다락방장 : 정경자 / 부다락방장 : 안분선

11교구 : 지도 서명철 교구장 오치열 부교구장 김웅기 간사 이승준1 최현인

- 1 다락방장 : 조정옥 / 부다락방장 : 유운순
- 2 다락방장 : 전화진 / 부다락방장 : 김해중
- 3 다락방장 : 송지윤 / 부다락방장 : 박찬미
- 4 다락방장 : 김남순1 / 부다락방장 : 김정애4
- 5 다락방장 : 이명선 / 부다락방장 : 김정숙6
- 6 다락방장 : 문영희 / 부다락방장 : 박천희
- 7 다락방장 : 김양숙 / 부다락방장 : 이난희

12교구 : 지도 장석남 교구장 임상현 부교구장 주영도 간사 이민호 이정연1

- 1 다락방장 : 노애리 / 부다락방장 : 송명원
- 2 다락방장 : 김예환 / 부다락방장 : 김선희1

3 다락방장 : 남재은 / 부다락방장 : 조상희

4 다락방장 : 주영도 / 부다락방장 : 이안순

5 다락방장 : 김선영1 / 부다락방장 : 김희자1

6 다락방장 : 이건희 / 부다락방장 : 최종금

7 다락방장 : 이경연1 / 부다락방장 : 김수호

8 다락방장 : 김경순1 / 부다락방장 : 신동기

13교구 : 지도 장석남 교구장 노문환 부교구장 최원석 간사 장청수 최영경

- 1 다락방장 : 최원석 / 부다락방장 : 이원석2
- 2 다락방장 : 장창수
- 3 다락방장 : 김순진 / 부다락방장 : 이해정
- 4 다락방장 : 김경자 / 부다락방장 : 이승자
- 5 다락방장 : 김진현3 / 부다락방장 : 이옥선
- 6 다락방장 : 정영희3 / 부다락방장 : 박순복
- 7 다락방장 : 김은희9 / 부다락방장 : 채명숙
- 8 다락방장 : 최영숙 / 부다락방장 : 주화인
- 9 다락방장 : 고선옥 / 부다락방장 : 최진이
- 10 다락방장 : 박길희 / 부다락방장 : 김소형
- 11 다락방장 : 김성미 / 부다락방장 : 박희현
- 12 다락방장 : 고은옥 / 부다락방장 : 박미영3
- 13 다락방장 : 김미성

14교구 : 지도 조원영 교구장 이계홍 부교구장 김홍기3 간사 박상훈 최미경

- 1 다락방장 : 김홍기3 / 부다락방장 : 박명철1
- 2 다락방장 : 백영자 / 부다락방장 : 유숙인
- 3 다락방장 : 김애자 / 부다락방장 : 안미애
- 4 다락방장 : 정미연 / 부다락방장 : 손경화
- 5 다락방장 : 박정자1 / 부다락방장 : 전인숙1
- 6 다락방장 : 석상화 / 부다락방장 : 김서윤
- 7 다락방장 : 안선희 / 부다락방장 : 정미숙1
- 8 다락방장 : 이홍숙 / 부다락방장 : 이상섭

15교구 : 지도 서명철 교구장 홍일성 부교구장 정원진 간사 백난희

- 1 다락방장 : 김혜란 / 부다락방장 : 김인숙2
- 2 다락방장 : 백난희 / 부다락방장 : 문남이

16교구 : 지도 조원영 교구장 홍일성 부교구장 최규초 간사 백도환 김정제

- 1 다락방장 : 김정제 / 부다락방장 : 조희경2
- 2 다락방장 : 김정은7 / 부다락방장 : 이정하2
- 3 다락방장 : 이선희5 / 부다락방장 : 정금희1
- 4 다락방장 : 유미영 / 부다락방장 : 김정희10
- 5 다락방장 : 석춘희 / 부다락방장 : 이길자
- 6 다락방장 : 조정숙3 / 부다락방장 : 박금희1
- 7 다락방장 : 염혜영 / 부다락방장 : 최민자
- 8 다락방장 : 오천수 / 부다락방장 : 채교전



종려주일

Palm Sunday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마 21:1-11, 막 11:1-10, 눅 19:28-40, 요 12:12-19)을 기념하는 날로서, 날씨는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4월 9일이 종려주일이며, 이날부터 7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palm)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며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무리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일이 종려주일과 관련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지원자주일(Dominica Competentium)'이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지원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례지원자들은 이 주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강남노회의 불법행태에 관하여

노문환 장로 (당회 서기)

본 교회가 소속한 서울강남노회는 박노철 목사로부터 2017년 예,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청원안을 제출받고 총회 헌법상 예, 결산안은 공동의회에 앞서 당회와 제직회를 먼저 통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17년 2월 16일 상회로서 그 소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본 교회 당회는 박노철 목사가 교회 안식년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과반수 당회원의 합의로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한 원로목사님 인도 하에 2017년 예산을 위한 당회를 1월17일에, 2016년 결산과 2017년 예산을 위한 특별제직회를 1월 22일에, 그리고 공동의회를 1월29일에 각 개최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박노철 목사로 하여금 더 이상 불법적인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박노철 목사는 자기를 지지하는 성도들에게만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한 후 이를 처리하였다.

제91조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현금 취급
-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 ⑤ 부동산 매매

그러나 박노철 목사의 위와 같은 총회헌법 무시 행태는 지난 주 또다시 발생하였는 바, 이번 정기노회를 앞두고 열린 영동시찰회에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장로선출 안건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찰회는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 부적합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제6장 장로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4일 정기노회 당일, 앞서 시찰회에서 반려되었던 장로선출 안건이 어떤 경위를 거쳤는지 몰라도 다시 현의안으

로 제출되어 노회는 이를 받아들여 허락하였고, 후문에 의하면 현의를 받은 노회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 등은 박노철 목사가 당회결의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청원한 내용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를 통과시켰다고 변명한다고 하지만 이미 위 청원안을 반려하였던 시찰장이 노회현장에 있었음은 물론 노회 임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부원들도 현재 서울교회 당회가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후무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

더구나 총회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교회가 분쟁 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허락한 것은 더욱 더 상회인 총회마저 무시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노회행정이 아닐 수 없다.

헌법해석 제98회기

124. 교회 분쟁 시 장로 증원 청원 불가

목포노회장 김강순 목사가 제출한 “제110-49호, 목포노회 수다교회 분쟁건에 대한 헌법질의 요청(2014.7.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교회가 분쟁 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으며, 분쟁 전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현재 분쟁 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다”

결국 박노철 목사는 장로교 대의정치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만으로 교회나 당회를 운영하려는 생각이 여전하고 따라서 앞으로 장로교에 맞는 목회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즉 장로교 당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그에 관한 교단 헌법규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사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당회는 이러한 박노철 목사의 당회 무시와 무력화 시도행태를 총회에 전달함과 동시에 이러한 행태에 동조하고 있는 강남노회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도 일방적인 박노철 목사 편들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순례자 공모시 당선작

겉세라네

인승민 성도 (9교구)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두손을 포개고 올려다본 하늘은
이내 어두워진 내 고뇌의 밤을 위해
끝내 침묵을 드리워도
긴 밤 깨어서 내가 맞이할 새벽엔
죄악된 세상을 깨우는
새 생명을 향한 첫 아침을 위한 것!

단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은적 없었지만
아버지여!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밤이 지나갈수 없다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앞에 놓여진 잔을 두고
고단한 육체는
피땀 뺀방울을 이마에 맺어
가냘픈 내일을 예고하지만
내 영혼의 참된 안식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와 함께 있는것!

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일은 정녕 나를 버리려 하시나이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여 극심한 최후의 순간앞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로워질 세상을 향해 눈을 뜨는
새 아침 새 생명 새 사람들을 보소서

내가 견딜 마지막 밤은
아버지와 함께였으니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한낮은 어둠이 되고
나의 아침은 긴 밤보다 짧겠으나
처음부터 나를 보내신 목적
그 단 하나를 이루소서
이제 십자가앞에 내 육신은 잠들어도
세상은 깨어나리

죄와 증오, 절망과 자기에는
보배로운 피의 댓가앞에 명명하고
사랑은 온 사람의 심장속으로 스며들어
새롭게 할것을 믿으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나의 시간을 맡깁니다
나의 하늘을 밝히 여소서
사후 그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잊은 자

먼 곳 서머나에서 안부 전합니다.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흑암으로 뒤덮인 풍랑이
 는 바다와 같은 이곳에서 한 명이라도 건져내려는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붙잡는 듯 했는데 어느새가 퍼진 손은 빈
 손인걸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때가 오곤
 합니다.
 서울교회 소식을 듣고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너
 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아름
 다운 소식이 오면 좋으려만 험난한 세상과 똑같은 모
 습의 소식을 접하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얼
 마나 아프고 아프실까"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여차피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간절한 바램을 전
 해 봅니다.

전방에서 '실탄'이 없다는 것은 현장에 있지 않
 면 실감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
 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
 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
 해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본인의 마음을 앞세운다면 불협화음이
 일어남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요?
 그 과급은 생각할 수 없을만큼 크다는 것을 만드
 시 기억하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
 씬으로 제 글을 마치려 합니다.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
 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서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

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되도록 아침마다 간구하고
 있고 계속 무릎 꿇겠습니다.

서머나의 한 모퉁이에서 전 OO 올림.

나눔의 집 운영 재개

이번 주부터 나눔의 집 운영을 재개한다.
 제2권사회(회장 : 김찬진권사)에서 1층 화장실 쪽
 에 수거함을 비치하여 헌 옷을 모을 것이며 판매 방
 법에 관해서는 차후 공지할 예정이다.
 그간 나눔의 집 수익금은 구제 및 선교 등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 왔다.



사순절에 듣는 마태수난곡



임종태집사
 (은빛찬양대 대장)

올해도 사순절을 보내며 나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
 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
 는지 돌아보며 경건의 연습을 통
 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
 해 봅니다. 저는 해마다 사순절이 되
 면 바흐가 작곡한 수난곡을 들곤
 합니다. 수난곡 4개 중 마태수난
 곡과 요한수난곡을 자주 듣는 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다 이루
 었다' 하시며 영혼이 떠나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의 과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수없이 듣는 곡이지만
 들을 때마다 나는 이 곡을 들 때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낍니다.
 마태수난곡은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예수님, 베드
 로, 빌라도, 가롯 유다, 마리아는 각각 맡은 이들이
 독창을 하고 아방젤리스트(복음사)가 마태복음 26
 장과 27장을 읽으며 진행합니다.

입입니다.
 마태수난곡은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소재로
 한 곡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
 유를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
 아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최후의 만찬, 가롯 유다
 의 배신, 베드로가 주님
 을 부인하는 것, 겟세마
 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
 도하시는 것과 로마병
 정들에게 잡히시고, 빌
 라도 법정에서 서시는 등
 모진 수난을 겪으시고



사순절도 어느덧 끝나가고 부활 주일이 다가
 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순절이 유난히 길고 힘들게
 느껴졌던 것은 아마도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
 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
 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
 셧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무덤에 묻히셨기
 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고난이 지나면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는 반드시,
 반드시 정금과 같이 되어
 주님의 사명자로 거듭나
 부활할 것입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4월 9일(주)부터 15일(토)까지
 고난주간 영상 새벽기도회 설교를 한다.
- 특담 : 4교구 김성환 집사 이우니스 성도
 (김규태 집사 박미혜 권사 장남 가정)
- 지난 주 식사 및 간식 찬조: 호산나대학 학부모 백
 정숙 최영경 김윤지 박민숙 김명화 이영희 최금숙 박
 동희 이정연 정미연 이순영 이관규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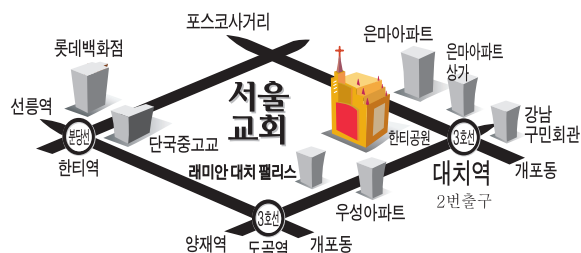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
 이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2.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성금요일 오후 8시에 연
 합다락방으로 모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2. 2017년 1/4분기 추가 임명된 섬김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충성된 마음을 부여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